

# 建築藝術論考 ( II )

An Essay on Architectural Art

崔 椿 煥

명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3. 建築藝術의 本質構成要素들

우리들은 前術한 바에 의하여 建築이 藝術의 한 분야임을 몇몇 美學者들의 논설에 의하여 알 수 있었거니와, 建築藝術이 다른 藝術과 구분되는 특성, 다시 말해서 건축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全一의 분석 추출하는 것이 建築論의 연구목적이며, 또 本稿가 이 연구 목적을 향한 하나의 고찰이요 記術이라 할 때,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건축 예술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諸要素, 因子들에 대한 개별적 고찰과 이들 因子들의 相關관계의 논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들 여러 要素들에 관한 상황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모호한 「空間」 문제 부터 고찰을 시작하여 볼까 한다.

### 1. 建築藝術의 空間

前號 末尾에서 諸藝術의 分類와 제 예술 중의 건축 예술의 위치에 대한 美學者들의 규정에서 건축은 空間이 主素材가 되는 空間藝術이다 라는 통념적 정의를 얻었거니와, 여기서 일컬어지는 「空

間藝術」이란 말은 近代 美學에서 예술의 表現 樣式을 空間藝術(獨, Raumkunst)와 時間藝術(Zeithkunst 또는 musishkunst)로 2대별하여 음악·무용·시 등 시간의 경과 속에 각 구성 부분이 繼起的으로 배열되어 이룩되는 예술에 대비하여, 건축·회화·조각 등에서 空間 속에 並列的으로 배열되어 구성되는 예술이란 구분 기준에서 나온 용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술 구분을 위한 기준인 시간성·공간성은 흔히 각 예술에 공존될 수 있어서, 歌劇이나 무용이 시간 예술이면서 각기 무대 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건축·조각에서 형태의 리듬감이나 視覺의 이동, 시간의 변화에 따른(한 낮, 月賣속등) 것등의 시간적 요소의 작용 속에 그 예술성의 전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建築은 본질적으로, 超驗的으로 直觀되는 空間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인식되는 物體에 의한 形象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空間藝術이라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술구분 기준으로 쓰인 「空間」이라는 말을 건축 예술의 본질 규

정을 위한 개념 용어로서 쓰고자 할 때, 다시 말해서 “건축의 가장 근본적 본질은 공간이다”라고 표현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 이유는 같은 조형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회화·조각등도 다 각기 2차원적 공간과 3차원적 공간속에 성립되고 표현되는 예술로서 공간성을 주소재, 본질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空間」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들 예술의 본질이나 특성이 설명될 수 없을 것이며, 또 같은 3차원적 공간 속에 이룩되는 건축과 조각을 놓고 볼 때, 현대의 여러 조각작품이 건축과 마찬가지로 조각체내에 공허부를 갖는 内部 空間이 존재하는 일방 건축에서는 이집트의 피라미트이나 고대 로마의 개선문 등과 같이 내부 공간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구축물도 엄연히 건축 임에는 틀림없고, 또 내부공간 기능이 외부공간 효과에 미치지 못하여 조각적인 건축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희랍의 신전 건축중의 파르테논도 동서 고금을 통한 건축의 최대 걸작으로 지칭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예술구분 기준인 공간 개념 문제를 떠나서, 建築論上的 空間問題를 살펴 보자.

「空間」이 建築本質 構成 要素가 될 수 없다는 이론과 최근의 대표적 예는 위선 철학 전공 학자로서 건축미학 이론을 추구한 스크루톤(Roger Scruton, 런던 대학 강사)의 저서 「건축미학」(The Aesthetics of Architecture, 1979)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제비(Bruno Zevi Architecture as space 1957)나 푸랑클(P. Frankl; Principles of Architectural History 1968), 기디온(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1941, Architecture and Phenomena of Transition 1970)들을 인용하여 이들의 「空間概念」을 논박하면서 “한 마디로 「건축의 경험」이 「공간의 경험」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변호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전개서, P43)라고 단정하여 근대 건축의 발생 이념이었던 기능주의와 건축 공간론을 동열에 두고 비판, 부정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축 본질로써의 공간론에 대한 비판은 스크루튼만의 것이 아니어서, 建築空間論의 體系의 系統 研究를 行한 上松佑 = (東海大學教授, 1981~1984)에 의하면, 위선 實存主義 哲學者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건축·거주·사유」(Bauen, Wohnen, Denken, 1952)에서 “건축 한다는 것은 어떤 「場」을 生成한다는 것인 까닭에 空間은 諸室의 연결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넓혀짐(extentio)으로써 건축의 物的조직 속 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 한다는 것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결코 空間을 造形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建築 造形이 결코 空間 造形이 아님을 단정하고 있고, 이러한 하이데거의 所設을 근거로한 공간론·비판자들의 대표로써 바드(Kurt Badt, 1890-)는 「空間概念」이 도처에서 濫用되어 예술 작품의 참다운 의미를 손상 시키고 있음을 경고하고, “조형 예술에서 공간 작용은 언제나 물체의 표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건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공간이 아니라 건축된 물체적인 것이다”라 하고 물체의 표현이 第一義이고 공간은 물체 창조 結果로써 생기는 空虛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第二義의 것으로 규정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 공간이 건축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건축 공간론」반대자들에 대비되는 지지자들의 예를 위선 創作의 입장에 선 作家들의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르 콜뷔제(Le Corbusier 1887-1965)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그의 초기에 기능주의의 기수로써 “주거는 사는 기계다”라는 말로써 많은 사람에게 그의 조형 이념을 오해하게 한 그가 그의 노년기에 가서 그의 일생에 걸쳐 어떻게 하면 「건물」이 「건축」이 되는가를 탐구한 結果의 일부를 서술한 자서전적 저서인 「르 모듈」(Le Modulor 1948)에서 “1945년, 몇해 동안의 고뇌의 해를 겪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空間」에 대하여 그 감동의 근처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조각·회화는 본래 그 종류상

공간에 의존하고, 각기의 방법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는 필요에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근원적인 것은 美的感動의 열쇄는 空間의 作用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신앙에서의 기적은 잘 모르나 造形感情의 完成이라 볼 수 있는 이 무어라 표현 할 수 없는 공간의 기적은 자주 보았다”라고 술회 함을 볼 수 있다.

다음에는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9-1959)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 저서로써 그의 죽음 2년전에 간행된 「遺書」(A. Testament 1957)에서 건축 창조의 기본적 개념은 곧 공간 개념임을 시사하면서, 인간의 건축공간 의식을 나타낸 最古의 것으로 老子(B. C. 550경)의 「道德經」의 제11장의 구절을 음미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근대의 實存主義의 現象學의 原理의 철학적 對立概念인 「實存」와 「非實存」의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뜻이 깊은 것이다. 여기에 이 구절의 의역을 옮겨보면,

30개의 바퀴살이 바퀴의 중심에 모여 하나의 텅빈 바퀴 구멍을 이룬다. 이 구멍의 無의 空間이 차축을 넣어 수레 구실을 할 수 있는 有用함을 낳는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의 텅빈 공간이 그릇의 有用함을 낳는다.

窓間을 달아서 室을 만들 때, 그 방을 쓸 수 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空間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有形의 利가 생겨남은 바로 이 無形의 것에서 비롯된다.

이상의 구절을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하였다.

建物の 實存은 벽이나 지붕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內側의 空間에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이트의 생각은 환 데 쾨(Cornelis van de Van)이 근대 이후의 건축 공간론의 이론 발전의 개요를 서술한 것인 「建築의 空間」(Space in Architecture, 1980)에서 그의 책의 末尾를 짓는 것으로도 인용되기도 하였거니와, 환 데 쾨는 그의 결론에서 空間概念의 연구가 현대와 미래의 건축이 공간

에 대한 새로운 비존 속에서 그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 작가들의 공간 이념과 맥락을 같이하는 본격적인 이론 추구의 발생 시기를 환 데 쾨는 힐데브란트(A. Hildebrand 獨. 조각가 1847-1921)에 의한 「造形藝術의 形式問題」(1893)에서 건축 이념으로써의 空間의 美學的 知覺에의 形能理論이 창시 되었다고 보고, 純술한 上松佑二는 그 보다 앞서 세링(F. W. J. Schelling, 1775-1854)의 「藝術哲學」(Philosophie der Kunst, 1802-1805)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세링은 널리 알려진 “건축은 凝固된 音樂이다”라는 말과 「空間의 音樂이라고 표현하면서 “음악에서의 인터발은 시간의 간격이나, 건축의 것은 공간의 간격이다”라 하여 건축의 미적공간 체험의 해명을 위한 이론을 제기 하였고, 이를 이어 「공간 이념」이 「건축의 생명」으로서 의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現代美術史·藝術學에 많은 영향을 준 볼크할트(J. Burckhardt, 1818-1897)에 의한 「치체로네」(Der Cicerone, 1855)로 보고 있다. 그 이후 수많은 哲學, 美學·藝術家들의 論者들에 의하여 1850년부터 현재까지 哲學的 空間論 建築空間論이 논의 되어 왔으나, 上松佑二가 지적 하듯이 이들 연구가 지금껏 어떤 限界를 넘지 못하고 담보 상태에 놓여 있는 듯하다.

이와같이 「空間」내지 「建築空間」이론의 체계적 구멍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첫째로 「人間과 空間」이라는 哲學的·認識論的 論究가 피타고라스(Pythagoras B. C. 6세기경)·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회랍 철학에 시발을 두고 근대의 칸트·헤겔·하이데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행하여 왔음에도 아직껏 未解決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와서 Otto Friedrich Bollnow의 「人間과 空間」(Mensch und Raum, 1963)나 Alexander Gosztonyi의 「空間」(Der Raum, 1976) 등에서 어떤 진전을 보인다는데 있고, 둘째는 上松佑二가 Reuger Banham의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1960)를 인용하여

말하듯이, 우리들의 言語體係가 「감각의 표현 보다는 「개념」의 표현에 적합하기 때문에 「공간체험」이나 「美」의 정의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美的空間體驗」의 美學的 研究는 여전히 「모든 학문의 한계」로써 많은 論者들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空間」 또는 「空間體驗」이라는 것을 이해 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서술을 얻지 못한채, 르 폴뷔제가 「空間의 奇蹟」이라고 밖에 표현 할 수 없는, 言語를 넘어선 「美的空間體驗」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建築空間論의 근거가 될 諸理論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 空間論 一般의 영역이 어느정도 확장되어졌는가는 上松佑二가 제시 하듯이 워선 Gosztonyi가 그의 저서 「空間」에서 회람에서 현대에 이루는 모든 哲學的·幾何學的·物理學的·心理學的·現象學的空間論을 體係적으로 論하여, 「體驗空間」「知覺空間」「環境空間을 위시하여 數學的空間」「物質的空間」「宇宙空間」에 이루는 29種의 공간 개념을 분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建築空間」은 이들 어느 「空間」과도 어떤 의미에서 관련되는 「複合空間」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建築空間論」에의 접근도 多岐多様할 수 있어 建築論의 空間論의 추구의 어려움이 있는 동시에 論理的 기초자료도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建築論의 입장에서는 실제 작품에서 발생하는 感覺의現象과 그 體驗이 주요 과제가 되므로 「具體的·感覺的·現實的·現象的空間」에 초점을 맞추어 논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상징공간」「의미공간」도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 공간을 살펴볼 학문적 근거를 갖는 것이나, 모든 고찰에 앞서 필요한 전제가 되는것은, 과연 「건축공간」을 우리들 감각·감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파악하고 감각·지각하는 것은 건축의 量塊(mass)와 벽·바다·천정등을 구성하는 물질과 형태이지 공간 자체는 잡을 수도 없고 知覺할 수도 없는 空虛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Badt나 Heidegger 가 건축에서 물체가 第一義고 그 결과로 생성되는 공간은 第二義라 볼 때 건축 예술을 구성하는 근본요소·본질을 추출하는데에 「건축공간」을 운운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도 생각된다.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Badt나 Heidegger의 논거에 비추어 해답을 구할 수 있을것 같다.

건축 공간이 벽·바다·천정등의 형태에 의하여 구성됨은 누구에게도 분명하고 「이 형태」가 있을 때 「이 공간」이, 「저 형태」가 있을 때 「저 공간」이 知覺될 것이다. 분명히 form인 물체가 第一義的이고 공간은 第二義가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건축 내부에 들어서서, 바닥의 형태, 벽의 형태, 천정의 형태 등을 각기 다른 순간에 知覺하고 이들을 다시 뒤에 合成하여 그들 3자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室內全體를 統一的으로 知覺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처음 순간부터 상하·좌우·전후의 3차원의 통일체로써 일시에 파악하는 「立體感覺」이라는 일종의 統覺器官의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들이 知覺하는 것은 분명 건축의 양괴나 형태이지만 동시에 이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간도 지각하는 것은 분명하며, 다시 엄밀히 분석하면 어떤 공간에 있어서의 mass form, 다시 말해서 공간이 중심이 되어 공간이 이들 제구성 요소들을 통합 구성하여 각 요소에 표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떤 管廳 건물 내부에서 권위의 위엄성을, 어떤 銀行의 홀에서 財力에 대한 신뢰감을, 어떤 주택 실내 공간에서 인간의 따스함을 체험하는 각기 특유의 空間感과 空間體驗·美的感情등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體驗」은 享受美學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創作美學的인 입장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作家가 設計하는 것은 궁

극적으로 공간 그 자체이지 결코 어떤 물체·형태가 추구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작가는 어떤 空間理念을 具理시키기 위하여 材料·構造·마감·장식 등을 사용하고 이것이 可視的 형태가 되어, 공간 표현의 구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간은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없고, 공간적인 작용은 물체의 표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된다」라는 命題는 「공간은 예술적 표현의 직접적 대상이며, 공간 작용은 물체의 표현과 더불어 직접 형성된다」라는 命題와 대치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創作과 享受가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合一이되며, 共感을 이룩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건축의 실현은 작가의 설계 행위에서 비롯되어 지는데, 이 설계 행위란 작가의 「理念空間」을 投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시간 후에 이룩 될 「現實空間」에 대한 「미리 投企된 現實空間」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작가는 享受者의 「공간체험」을 미리 체험하는 「空間의 予體驗」을 가지며, 이 작가의 「空間予體驗」이 「建築空間」이 실현되어 향수자의 「공간체험」에 의하여 건축의 완성이 이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 할 것은 創作·享受의 접촉에서 건축 공간을 대하는 향수자의 「主體」의 성격이다. 즉 「건축공간」을 향수자가 단순한 「客體」로써 「自我」의 感性作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건축공간」은 「事物의空間」이 될 것이고 어떤 「建築藝術」은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건축 공간이 「聖스러운 공간」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들의 「自我」가 이것을 「超越的空間」으로 感覺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自我空間」과 作家에 의한 「建築空間」이 接合되어 건축의 「美的空間體驗」이 형성되고 이 「自我空間」이 여러 사람에게 공통될 때 「우리 공간」이 형성 되어진다. 이 「自我空間」은 外界의 모든 事物에 대한 자신의 精神的·魂的·理念的 空間이고 이러한 作家와 觀客의 個的空間理念의 共鳴에서 건축 예술이 성립 된다고 요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建築藝術의 本質性을 지녔다고 假定되는 이 「建築空間」을 구성하는 基本因子는 무엇인가를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앞서 건축 공간이 바다·벽·천정등의 물체들의 형태에 의하여 구성되어 짐을 보았다. 그런데 이 「형태」는 材料가 갖는 材質感·色感·量感·상세처리·장식마감 등 物性과 모양·크기·선 등의 형태적인 것과 여기에 作家의 「空間理念」의 작용으로 이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理念」이란 그 作家에게 작용하는 文化的要素들, 즉 社會·經濟·時代精神·傳統性·藝術性·기술 등의

社會的·個人的·人文的條件들과 自然的條件(風土·기후·지리등)의 影響하에 형성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原因들이 직접·간접으로 연관을 갖고 하나의 「건축공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들의 因子들을 정리·분류하여 보면, 결국 上松佑二가 결론으로 정의한 것에 일치하여, 「建築空間」은 「機能」(이것 없이는 애초에 건축이 발생되지도 않는다), 형태(모든 物的·기술적·예술적·요소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건축 공간이 형성될 수 없다) 아이코노로지(iconology; 圖像學, 이 藝術記號論의 성격을 띤 용어는 어떤 예술 작품의 유형이 지니는 특성·의의·의미

를 뜻함, 이것 없이는 건축 공간이 지니는 理念·意味가 없다)을 內包하고 構成되어져서, 이 「空間」을 「體驗되어 지는 空間」(이 개념은 O. F. Bollnow 가 「人間과 空間」에서 쓴 용어이다), 또는 「生이 부여된 空間」(이 개념은 E. Minkowski가 「宇宙論」에서 쓴 용어이다)으로 感覺되어 성립되는 空間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참다운 건축예술 작품이란 이들 기능·형태·아이코노로지·공간체험 이 조화를 이루하는 「建築空間」에서 구현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 다음號에 계속 -

## 고층 아파트의 방화 및 피난업무 처리 기준 통보

최근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용 조치에 따라 신축 고층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시 방화 및 피난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아래 내용과 같이 시달한 바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무) 예방 02412-4469('85. 12. 4) 및 주정 30400-1032('85. 12. 6)의 관련임.

2. 고층 아파트의 건축허용 조치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상의 방화 및 피난규정의 일부를 보완내지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신축 고층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시 방화 및 피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목적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신축이 허용됨에 따라 건축법령상의 방화 및 피난규정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을 일선시도에 시달하여 운영함으로써 주거안전을 기함에 있음.

나. 대상 : 16층 이상의 신축 아파트  
다. 기준의 세부내용

(1) 피난시설의 보강

(가) 중복도식, 계단식, 타워식의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고, 복도나 계단에 소방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할것. 다만, 편복도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발코니에 인접세대로 피난을

할수 있는 피난구 또는 용이하게 파손할 수 있는 경계 칸막이벽을 설치하고, 피난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를 40미터이내 가 되도록 할것. 다만, 건물 양단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와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의 규정을 그 유효폭을 10층 이상의 층에서는 90센티미터 이상, 9층 이하의 층에서는 100센티 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중 1대 이상에 대하여는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할것. 다만, 비상용 승강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복합용도 아파트의 구획

(가) 아파트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여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 계단(피난계단을 포함한다) 및 승강기등은 그 아파트 이외의 시설과 내화구조등에 의하여 분리된 구조로 하여 화재등 비상시 긴급대피에 용

이하도록 할것.

(4) 21층 이상의 아파트에 관한 유지관리 강화

(가) 2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1) - (3)항에 의한 방화시설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시장·군수가 실시토록 하고, 준공후에는 동시설의 유지관리상태를 관리주체가 년 1회 이상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할 것.

(나) 21층 이상의 아파트의 관리는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의41항 전문관리업체에 의한 위탁 관리가 되도록 적극 권장 할 것.

라. 행정사항

본 기준은 내무부의 예방 02412-61('86. 1. 10)의 건축법령 관련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 시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의 구조 형식이나 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등에 대하여 향후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시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함과 동시에 본 기준의 운영과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착오없이 바람. 끝.

— 건 설 부 —